



네가 있고 내가 있지만 돌아닌 그 소식을 알아야!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났군요. 우리 이 머리가 하나의 해골로 구성이 됐지만 너 나가 있듯이 대뇌 속에 반쪽씩 나누어져서 들어 있다고 봅니다. 우측은 잠재의식 자체로서 아주 광대 무변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대뇌의 우측이라고 봅니다. 또 좌측에는 현재 50% 현상 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묘지와 자식 묘지가 있는데 양면이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니 그 연고는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젠 제가 젊었을 때 그저 무조건 길을 걸을 때에 있었던 애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대로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대뇌의 안에 있는 우측 좌측이 한데 결합이 돼야만이 여여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여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드는 것은 바로 좌측으로 들어서, 우측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니 그것이 거기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건 무시하고 여러분이 이 대뇌에서 지금 사용하는 50%만 가지고 항상 들이고 내고 하나까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처 능력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려고 기계 하나를 사서 들여놓는다면 그 속이 어떻게 조립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알아야, 같은 아무렇게나 생겼어도 '아, 이걸 걸만 손을 본다면 능히 쓰기도 남고 이 기계는 참 좋구나!' 하고 싣 값에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죽을 감쪽같이 놓고 속은 망가진 거를 고쳐서 갖다 놓고 팔려고 그런다면 거죽만 보고 속은 못 보니까 그건 여러분이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흡수해서 들이는 것이 이 대뇌의 우측에 잠재해 있는 그 모든 광대무변한 뜻과 법이 거기에서 송두리째 결합이 되면은 나온다는 애깁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계추와 같이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용의 능력은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뇌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머리와 왼쪽 머리를 차례로 짚어 보아시며)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해도, 이걸 먼저 뭘 게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순환되고 똑같이 대뇌에서부터 소뇌로 이렇게 해서 사대(四大)로 다 통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음식 먹어보지 못한 건 생각조차도 못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쫓겨 가면은, 여러분은 그때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뇌의 좌측에서는 오관을 통해서 들이는 거

를 우측에 항상 맡겨 놓는다. 내는 것도 맡긴다. 그럼 대뇌의 반쪽씩 있는 데다가 다 맡긴다면은 자(子)가, 즉 말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모든 걸 달랠 때도 "아버지!" 또 들일 때도 "아버지!" 하고 말을 할 때도 "아버지!" 다 자라기 이전에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드시 기댍니다. 아버지한테 기대지, 부모한테 기대지 않으면 어디다 기댍니까?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서 나가고 장가들 때까지는, 시집갈 때까지는 부모를 믿고 따라야죠. 자기가 혼자 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나 이것이 생각해 봐서 잘 안될 때는 아버지한테 상의를 해야죠?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것은 '이것이 남과 내가 다 뭐 그렇게 구차하게, 약하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나 정히 안될 때는 고심을 하면서 부모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죠. 이러한 거와 같이 이 대뇌에서 좌측 뇌는 우측 뇌로 다 맡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마음이 나와서 그러느냐? 마음은 마음대로 나와서, 나오게 되면 벌써 뇌로 가죠? 뇌로 가서 이쪽으로 다 맡겨 놓으면,

맡겨 놓으면 거기서 돌아서 다시 좌측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리한 거를 맡겼는데 불리하지 않게끔 바깥으로 나왔다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용광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굴러서, 속이 상하더라도 한번 거기 맡겨서 굴러서 내놓으면은 좋은 말로 나갈 수가 있다. 그냥 곧이곧대로, 속상한 대로 여기 대뇌에 들어갈 사이도 없이 여기서 곧바로 그냥 썩 대면 지혜로운 그 능력이 거기까지 밝게 못 비춰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을 이끌어 이렇게 같이 항상 도반으로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 못하고 있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돈을 받고 사는 거러야만 하고, 사는 거를 주면 참 고맙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먹을 거를 줬다면은 고맙다고 하고 또 거기 더 좀 붙여 돈을 얼마를 보너스라도 줬다 하면 참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공기가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이런 거 보고는, 바람 같은 거 보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공기를 사서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싸겠습

니까? 병원에서 어디 고장만 나면은 가서 집을 팔아다가라도 갖다가 디밀곤 수술을 하고 야단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로 그대로 지금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는 어디다 감사해야 하느냐. 내 주인공입니다. 나도 지수화풍이 근본입니다. 일체 만물이 다 지수화풍이 근본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수화풍 아니면 지금 어떻게 사시렵니까? 지금 지수화풍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보다도 여러분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마워해야 하는 거를 모르고, 저 사람에게 절을 하고 저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시계추와 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리로 가도 아니고, 저리로 가도 아닙니다. 이리로 갔는가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갔는가 하면 벌써 이리로 가고, 어떻게 그것을 너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습은 각각이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돌아아니게 돌아가지 마는 내가 있고 내가 있다. 내가 있고 내가 있지만 돌아아니게 돌아가는 그 소식을 안다면 여러분은 자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별레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벽도 터지고 붓장도 터지고 사방이 다 터집니다. 우리 태극기에도 있습니다. 천지가 있는가 하면 천·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삼사, 오, 육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이게 세상을 말한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병원에서 "심장만 뛰지 목석처럼 이 정신이 깨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노릇을 못하고 산다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죠.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괴롭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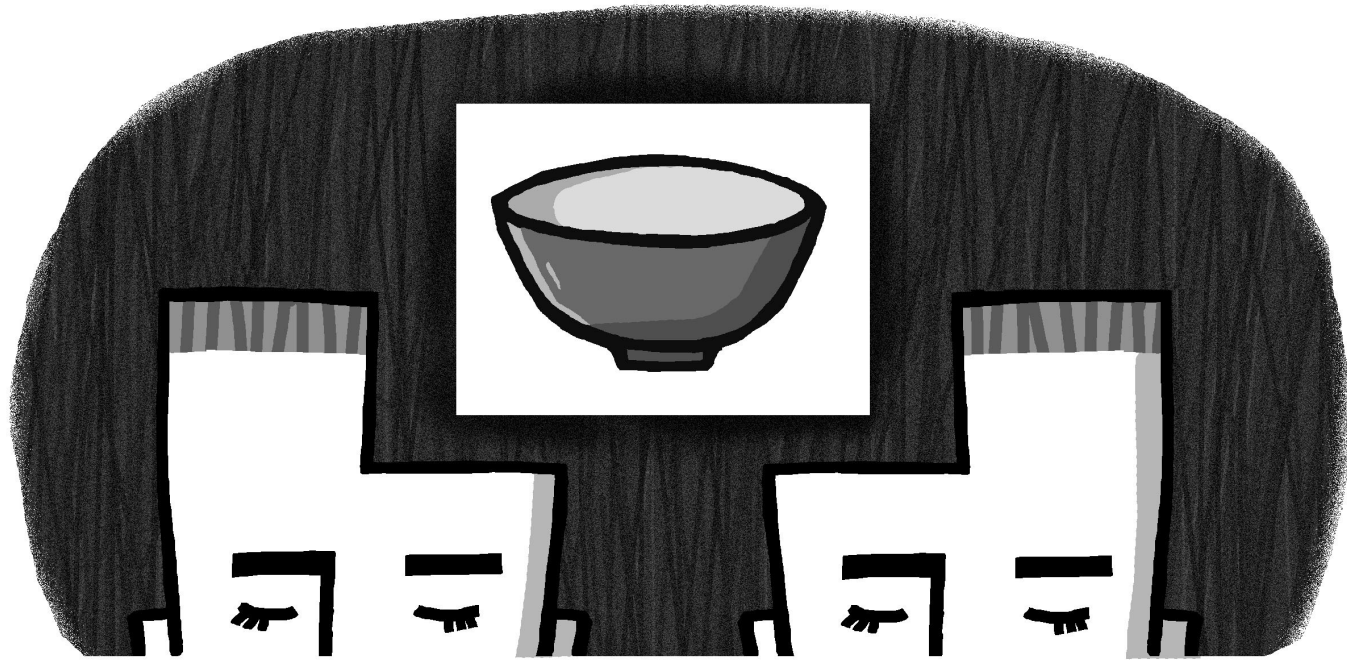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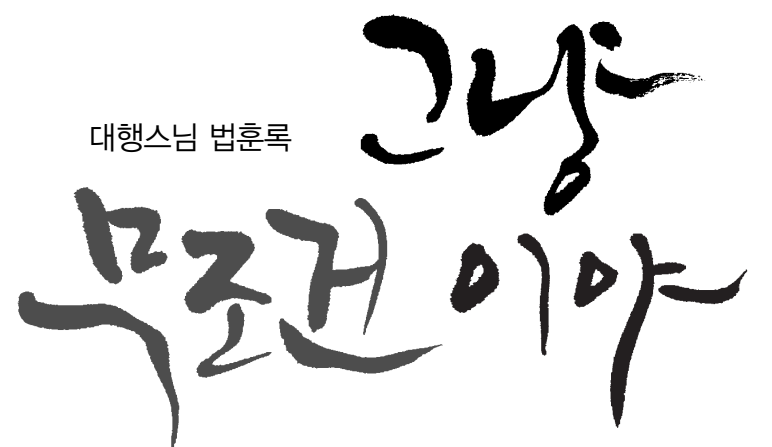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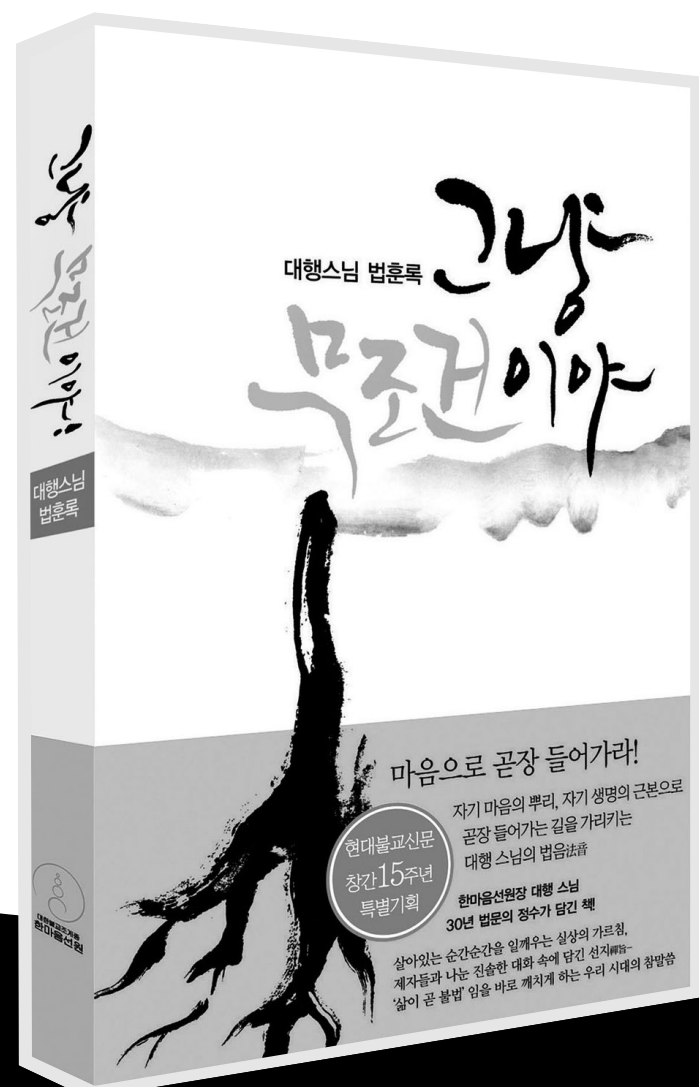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실용의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일체가 머물러져 있지 않기에 참나 생활이면서 공했다

29면에서 계속

충만히 돌아가기 때문에 삼계(三界)를 돌고 있습니다. 심상으로부터, 뇌로부터, 저 발끝으로, 지금 여러분이 딛고 다니는 것도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땅이 자체도 세포가 있는가 하면 자력도 있고 전력도 있고, 광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디디는 것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끔니다. 땅도 자기네 힘대로 끔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디딜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그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거, 모든 일체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또 천체물리학이나 의학이나 다 우리 한마음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어떤 스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승려 노릇을 하면서도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관에다 넣어서 다 해 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가서, 예전에는 산소를 썼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딛고 가는데, 벌써 요 한 마디, 발가락 요 첫 마디에서 벌써 지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만 도가 아니라 통신이 됐으면 볼 줄 알고...' 하는 것이 이게 심안의 눈이에요.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줄 아시지 말고, 시계추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간 줄 알지 마시고, 저기 갔다고 해서 저기 간 줄 아시지 말라 이거예요. 온 누리의 눈이니까. 여기인들 눈이 없었습니까마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통신이 가면 통신이 오기 때문에 심안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는 우측 대뇌에서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꾸러 나가면서 대의적으로 광대한 법을 타 가르쳐 주죠.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딱 있으면 여기가 그대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혈액이나 산 혈액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 아무리 좋은 데를 찾아서 한다고 해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통신이 돼서 딱 서면 그 자리가 그냥 법이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나쁜 데도 좋은 데라고 딱 지적하면 좋아지고, 자리가 좋은 데도 사람이 아주 쾌심스러워서 수십만 명의 생명들을 해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산소 좋다면은 자기가 그걸 뺏아서 자기 산소로 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저건 참 안되겠다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좋은 데다 썼어도 그 집안은 아주 안됩니다.

그러니 그 한생각의 도리는 너무나 깊고 깊고 또 깊어서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 도리입니다. 그걸 법도

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부처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되 함이 없다 하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 해 드렸죠? 여러분한테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집어먹어서 그만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은 내가 집어먹어서 또 없다고요. 그러니 누가 말을 했으며, 누가 들었느냐고 말할 수밖에요. 그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참나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에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가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 생활이면서 공(空)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나쁜 꿈을 꿔다 하더라도 '나쁜 꿈을 꾸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좋은 꿈을 꾸고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지.' 한다면 그게 그대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머물러져 있지 않기에 때문에 빨리 돌아오죠? 그게 운전과 같은 것도 되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좋게 한 것도 거기지. 감사하구

팔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해서 먹고 산다면 헛바닥을 깨물고 죽어 버리지." 하고선 그냥 말았습시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그냥 그냥 나오셨어요. "왜 나왔느냐?" 그랬죠. 그랬듯이 내가 '신도들이 많이 와야겠다.' 또 '많이 걸어야겠다.' 그런 걸, 부처님을 팔아서 그런 걸 많이 해서 뭘 합니까? 따지고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집도 가져가지 못하고 내 몸도 가져가지 못하는 데 그게 뭐 그렇게, 그렇게 근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더불어 같이 돌아가면서 너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 약속 지켜라. 또는 의리를 지켜라. 도의 또 질서도 지켜라. 우리가 인간 된 도리를 다 지킨다면, 그것도 거기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지킨다면, 팔정도니 육바

니 여러분은 뺏어 가져나 뺏기지 않고 또 갖다 주는 게 없으니 자자! 이리로 가도 이리로 간 것이고, 저리로 가도 저리로 간 것입니다. 이 머리의 두뇌가. 그러니 이것을 (머리를 만지시며) 통틀어 여기다가 놓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놓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 놓게 됴므로써 스스로 무심(無心), 그대로 무심도(無心道)가 돼서, 그대로 그 한 소식을 알고 있느냐 해서 "할!" 이러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주먹을 내밀기도 하고, 벽격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더라 얘깁니다.

옛날에 서산 대사(西山大師)가 공부하실 당시의 얘기입니다. 서산 대사님이 공부하러 가실 때에 쌀을 한 짐 마차에 싣고 가다가 보니까 아, 소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고 가서 사시마지 때에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쌀인데 어째서 내가 지고 가지 않고 소에게다가 밀어 던졌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쌀을 짚어지고 다시 20리 밖을 나와서 20리를 다시 쌀

그렇게 공부를 잘하셔서 아무리 그 어떠한 게 와도 눈도 깜짝 안 했답니다. 그건 왜냐? 나 하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 하나 버린다면 구태어 그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집 새로 짓고선 도둑이 들었죠. 그 래 저녁에 그랬습니다. "애야! 그때 요만한 처녀 아이가 밥을 했었어요, 여기 집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도 선생님이 오늘은 오실 것 같다. 그러니 문을 꼭꼭 잘 잠가라." 그러니까 "아니, 어떤 선생님이 오십니까?" 그 래, 허허허. 그래서 그랬죠. "도 선생님 말이야."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누구세요?" 그 래, 그래서 "아, 와서 가져가면 도 선생이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그날 딱 잠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말해 놓고 내가 문을 열어 놔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하실에 보일러를 뭘 때에 내가 땀이니까. 내가 보일러재이니가 새벽에 추우니까 내려가서 그 보일러를 올리고 그러고는 변소에 갔다가 그 변소 문을 잠그지 않고는 그냥 나왔던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꼬임에 자기가 빠지는 거지. 그렇게 문을 아무리 막아 놔도 안 돼요. 아주 차라리 열어 놓는 게 낫지. 그 래 이제 열어 놔더니 단지 문만 떼어 내놓고 그냥 들어오신 거지. 그런데 내가 보일러에 불을 놓고선 퍼억 방에 들어와서 팔장을 끼고 이려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문을 사르르르 열고 들어와요, 4시쯤 됐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계란색 잠바에다 계란색 내리담으로 해 입었어요. 허허. 그리고 발소리도 안 나요, 농구화인데. 착착 땀에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 래 들어오길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의아해하더라고요. 너무 난감해, 아주!

그런데 그때 내 옆에다 풀어 놓고 있었던 시계, 그것밖에는 없는 거야. 인제,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계를 열른 집어 주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 시계 놀라게 뭐 하러 이렇게 드릴 것도 없는데 오셨습니까? 드릴 게 있을 때에, 오시라고 할 때에 오세요." 내 말이. 그러면서 그 시계를 집어 줬겠다. 그랬더니 그 시계를 열른 받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싱긋이 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웃었지. 뭐. 그랬더니 영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 놔요.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89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생각의 도리는 너무나 깊고 깊고 또 깊어서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 도리입니다.



나.' 이렇게 일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라면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그대로가 참선이요 행선이요 길입니다.

그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여여함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오르고, 내 집안이 다 망한다 뭐, 송두리째 바가지 들고 얻어 먹으러 나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원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는 능력은 뭐냐? 허! 그것도 코웃음 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없는 걸로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신장, 호법신, 수호신 뭐 모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와 가지고 다 살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죠, 나같이. 여러분이 안 주면 안 먹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허허. 또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부처님, 부처님!" 하고 하도 밖으로 형상만 찾길래 그냥 내다가 도끼로 부숴 버리고 나니까 죄됨 안 온대요. "안 오면 그만둬라.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뼈다귀 끓여 먹고, 또 부처님 이름

라필이니 뭐 이런 거, 사제법이니 십이인연법(十二因緣法)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계율(戒律)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이익 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가 되면서, 원심력이 충만하면 원통력을 굴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일일이 따지자면은,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 올바르게 정진해야 한다." 이 소리를 다 하려면, 이 소리를 다 듣고 복잡하게 하려면 인제 공부해 나가십니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신통(五神通)의 재료가 충만히 여러분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쓸 때는 감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공부가 여간 대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참 광대무변한 법이죠. 그러니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이익 하지 못하게 된다면이나 수만 명에 피해가 생긴다면, 내가 여러분을 이익 하게 하고 해롭게 안 하려는 마음으로 끌고 가면 그게 딱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 할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 갖다 줘니까? 누가 뺏어 갑니까? 그러

을 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얘깁니다. 남한테다 떠넘기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공양을 천 일을 올리다가 보니까 천 일째 공양을 다 올리고 마지막에 관(觀)하고 있는데 불안간, 일곱 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그냥 쏘더라고요. 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보니까, 너무 우스워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일 떠나 크게 웃었던지 말입니다. 중국 대륙에 전부 들렸답니다. 그 소리가. 허허허. 그래서 인금이 말입니다. 국사를 두고 쓰는데 "저 소린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조선의 스님이 깨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응?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서산 대사가 그렇게 깨쳐서, 돌아다보니까 아무 간 곳이 없더라는 거야. 그 생각한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깨쳤고, 어떻게 했길래 일곱 명이 총을 쏘고선 그냥 없어졌는지. 그 일곱 명은 누굴까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또 각각 보시겠지. 허허허. 저 칠성(七星) 별도 각각 보시겠죠? 그렇게 각각 보니까, 그것도 각각 보시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태양도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서산 대사께서는



마이프렌드 정품 32,000원



무료배송, 정품확인 완료 73,000원



강력한 터보팬동작, 무료배송 84,000원

선풍기 무료배송
당일배송 및 안전배송

마이프렌드 정품인증 완료

박스팬 선풍기 32,000원
스탠드 선풍기(리모컨포함) 73,000원
터보팬 선풍기 84,000원

입금계좌
동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문의전화 02)879-2007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단)



(단)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장)



(단)

· 각 30,000원
· 규격 :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삼 02)2004-8216
[동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